

가정의례 의식과 개선 운동*

— 제주사회의 가정의례 행위를 중심으로 —

金 珍 英**

目 次

1. 머리말
2. 사회문제, 사회변동 그리고 가정의례
3. 연구의 자료와 방법
4. 가정의례 실태에 대한 의식 및 평가
5. 가정의례 개선운동: 태도, 참여와 운동주체
6. 결 론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식과 사회적 행위는 해당 사회의 객관적 조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경우 의식과 사회적 행위는 사회변동과정에서 마련되는 제기준들에 따라 조응하면서 변화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의식과 사회적 행위가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제주사회도 한국사회 일반이 보여주는 것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급격한 변동을 겪어왔다. 특히 70년대 이후로 관광산업의 육성정책으로 인해 이 부문의 양적 성장이 괄목하게 이루어지고 사회구조도 이에 조응하도록 짜여져왔다. 1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취업 및 고용구조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에 관한 의식과 사회적 행위는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²⁾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것들이 많은 부분 해체를 거듭해왔다는 점을

* 이 글은 필자가 1994년 10월에 제주도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한 「제주도 가정의례 간소화방안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쓰여진 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1) 김진영,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1995: 312~340.
2) 이때 '전통적인 모습'이란 한국사회 일반의 전통적 특성을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주사회의 전통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흔히 '전통'은 신념, 가치, 관습 등을 지칭하는데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것들도 역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의례에 있어서 남아있는 전통적인 모습이 모두 현대사회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의례에서의 이러한 의식과 행위가 여전히 남아 있음은 공동체적 연대감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기초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정의례에 연관된 많은 것들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그것들이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기준과 친화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감안한다면, 제주사회에서 의례에 관한 사회적 행위의 불변성은 지식사회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흥미있는 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행위들이 일방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그릇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른바 정신문화가 물질·기술문화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빚어내는 결과는 사회학적 관심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같은 지체현상에 대한 인식과 그 효과는 집단별로 상이하고, 그 심각성의 정도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기초로 이 글은 제주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의례와 연관된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의식을 평가하고,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와 참여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가정의례 절차 그 자체에 대한 탐색이라기보다는 가정의례, 보다 구체적으로는 혼례의례, 상례의례 그리고 소기의례시에 행해지는 관행 중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다.³⁾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연구의 과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제주사회에서 가정의례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면서도 심각성의 정도가 높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례행위의 불변성은 사회적 조건의 급속한 변동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가정의례의 제문제를 사회문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변동과 관련시켜 보는 작업이 요청된다.

둘째, 제주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정의례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심각성의 정도를 살핍으로써 가정의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확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의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둘째 작업의 결과로 심각성의 정도가 높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들에 대한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이 운동에의 참여의지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운동내용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은 운동을 조직화하고 관리해낼 수 있는 추진체를 필요로 한다. 가정의례 개선운동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주체를 판별해냄으로서 어떤 유형의 집단이나 단체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다룬다.

2. 사회문제, 사회변동 그리고 가정의례

사회문제(social problems)는 사회의 많은 성원들, 특히 의미있는 사람들에 의해 문제의 심각

3) 제주사회의 혼례와 상례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유용하다. 김영돈, 「제주도민의 통과의례(상·중·하)」, <<제주도>> 32, 33, 34호, 1968; 김영돈, 「통과의례(혼인, 상례)」,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 1973; 이광규, 「통과의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1974; 玄容駿, 「濟州島の喪祭: K村の事例を中心として」, <<민족학연구>> 42(3), 1977;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7.

성이 인식되며 이를 바꾸기 위해 모종의 행동이 요구되는 제반 사회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⁴⁾ 사회문제는 특정 시대 특정 공간에 위치한 사회속에서 많은 다수의 성원들이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며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공유된 의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⁵⁾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다수의 사회성원들 또는 의미있는 사람들에 의해 심각한 것으로,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된다면 그 사회적 현상은 사회문제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제주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정의례 행위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고 준수되는 행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고 준수된다고 해서 그 행위가 바람직스럽게 용인되고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분석될 것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주지역에서 행해지는 가정의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사회문제의 영역으로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가정의례 행위중 겁부조 행위, 답례품을 주고 받는 행위, 긴 의례기간, 음식물의 과다한 접대 등은 이러한 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사회문제의 영역으로 위치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보기와 같은 사회적 행위는 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위배되는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규범의 준수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정도는 해당 사회의 조건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절대빈곤이 만연해 있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부조행위는 가정의례를 행하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 내용도 일을 거들어준다든지, 긴요한 물품(가령, 쌀)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자본주의화되면서 경제적인 절대적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부조행위의 내용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그렇지만 산업사회에서도 부조행위는 적지 않은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원자화되기 쉬운 사회관계를 통합시켜줄 수 있는 측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상 자체로만 보면 부조행위는 공동체적 연대감의 한 표현이자 이를 중대시할 수 있는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거나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산업사회적 조건과 적합치 않거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을 때일 것이다. 가령 부조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제주사회에서 부조행위가 사회문제로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은 부조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부조 또는 겁부조와 연관될 때이다. 이중부조 또는 겁부조는 제주사회에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 중의 하나이다. 가정의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의례를 행하는 가정의 두 사람 이상에게 부조를 하거나 남편과 부인 등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동일한 가정의례에 참여할 경우 각기 부조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부조는 분명히 바람직스럽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겁부조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시소비적 행동패턴과 결부되면서 개인적, 가정적 차원에서의

4) 여기서 '의미있는 또는 중요한 사람들'(significant people)은 리더쉽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보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5) Rubington, E. and M. S. Weinberg,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Five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4~6.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장에 닥치는 어려움은 가족 단위로 볼 때 경조비 지출 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일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경조의 표시가 과거처럼 일을 거든다든지(일종의 '품앗이'의 형태로) 소액의 물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족구성원별로, 경조사에 직접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조비는 지출대상자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관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례시 과다한 음식물 제공과 답례품 제공도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의례를 담당하는 당사자의 의례비용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⁶⁾ 뒤르캄(E. Durkheim)이 잘 지적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던 제도가 사회실재적 힘을 갖게 됨으로써 초유기체적 강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해당시기 해당사회에서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던 제도나 관행이 사회적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이미 제도 자체가 사회적 구속력을 지니게 됨으로 해서 그것의 변화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예로 가정의례를 들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일찌기 오그번(W. F. Ogburn)은 물질문화와 적응문화(비물질문화)의 격차를 문화지체(cultural lag)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변동 과정을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⁷⁾ 그는 사회의 각 부분은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한 부분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분야도 변화를 통하여 재적응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문화지체를 설명한다. 즉 물질적 조건이 변화하면 적응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현실적으로는 물질문화의 변화와 적응문화의 변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지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질문화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적응문화의 지체현상은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제주사회에서의 가정의례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이러한 문화지체의 한 예로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문과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빠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원이 사회생활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의식과 제도적인 측면은 여전히 정체의 상황을 보이고 있음은 곧 문화지체의 현상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⁸⁾ 물질문화 자체가 합리성(rationality)을 바탕으로 하고 이의 운영과 행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현실의 가정의례는 비합리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6) 제주지역에서의 가정의례별 비용에 대해서는 김진영, 「제주도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방안 연구」, 제주도, 1994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상례의례의 관행을 간소하게 개선함으로써 절약될 수 있는 경비는 간단한 음식물 제공으로 2,295백만원, 답례품 폐지로 2,025백만원, 부조단일화로 6,750백만원 등 모두 11,070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청 건전 가정의례 실천에 관한 팜플렛(1994)을 참조할 것.
- 7) Ogburn, W. F., "The Hypothesis of Cultural Lag," in Amitai and Eva Etzioni (eds.), *Social Change*, 1964 : 459~462.
- 8) 의식과 존재간의 관계는 지식사회학의 오래된 관심사항이자 핵심적인 쟁점이다. 의식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의식 중의 어떤 부분은 존재의 변화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의식 또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은 문화지체론과 같은 결정론적 관점이 갖는 한계일 것이다.

제주사회는 환경적으로 육지와 고립되어 있는 도서성(insularity)을 객관적 특징으로 한 만큼 " 독자적이고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도서적 환경속에서도 한국사회의 산업화에 조응하여 물질적 기반과 조건은 빠른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정신적, 제도적 문화의 변화 속도는 이에 훨씬 뒤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문화의 변화가 비교적 뒤쳐져 있을 육지 농촌에 비해서도 생활과 관련된 제주사회의 가정의례는 여전히 구래의 전통적, 또는 인습적인 특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전통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과거 농경사회는 사회이동의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빈곤이 재생산되는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 가정의례에서의 상부상조 행위는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있어서 앞서 예로 든 바 있는 부조의 문제는 단순히 상부상조를 통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의미는 퇴색되는 반면 형식화되고 과소비적인 특징을 보임으로써 훨씬 더 타산적이되고 자기과시적인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평소 유지되는 사회관계 망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관혼상제를 경험하게 되면 부조를 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관계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관혼상제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 일반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제주사회에서의 사회조직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이다.¹¹⁾ 앞서 본 겹부조의 문제도 제주사회의 이러한 조직원리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겹부조는 제주사회의 조직원리가 집단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짜여져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로 부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육지사회와 달리 제주사회에서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겹부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장남 분가 사상, 사혼제도, 균분상속제도 등도 제주사회에서 한국사회 일반에 비해 개인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¹²⁾

- 9) 유철인, 「일상생활의 도서성: 제주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도연구회, 1984; 이기욱,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1집, 1989; 이기욱, 「한국의 도서문화: 서남해 도서를 중심으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 제11집, 1993; 송성대, 『문화인류학강의: 환경과 문화』, 법문사, 1994.
- 10) 현단계 제주사회의 가정의례에서 문제되는 것들 중에는 제주사회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국사회 일반에서 문제되는 것들도 있다. 혼례기간, 장례기간, 소기(소상), 겹부조와 개별 부조, 답례품 주기, 과다한 음식물 제공 등은 유독 제주사회에서만 문제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육지지역의 경우 결혼 피로연은 통상 1일에 한정되고 있고 장례일은 3일장이 지배적이다. 소상은 100일 탈상을 주로 하며 제사로 봉제된다. 부조금의 경우, 결혼시에는 예식장에서 접수처를 이용하고 있고 초상시에는 단상에만 상부조를 하고 있다. 답례품은 대부분 지역이 사용치 않고 있으며 음식도 밥, 국 등 간소하게 마련되고 있다. 제주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개별 부조 또는 겹부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호화혼수, 화환의 과다한 진열 등은 전국 공통으로 문제되는 것들이다. 제주지역과 육지의 각 지역별 가정의례 비교를 위해서는 제주도청 정책회의 자료(1994. 8. 31일자)를 참조할 수 있다.
- 11) 개인주의가 두드러진다고 해서 집단주의 조직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과 집단중심의 원리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사회 일반과 비교할 때 제주사회는 상대적으로 집단주의가 다소 약하고 개인주의가 좀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최재석, 앞의 책; 이창기,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 《사회문화논총》 제8집, 사회문화 영남학회, 1993을 참조할 것.

3. 연구의 자료와 방법

1) 자 료

이 연구에서 사용될 방법과 자료는 질문서법에 기초한 양적 자료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주도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방안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이다. 이 자료는 1994. 10. 19~29일까지 11일간의 표본조사에 의해 얻어진 것인데, 조사대상자는 1993년도 도·시·군 통계연보에 기초하여 세대 비례로 표집된 760명이었으나 최종 732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¹³⁾

질문서는 제주도 가정의례에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례, 즉 결혼, 상례, 소상(소기)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한 의식과 평가, 그리고 이의 개선 방향과 전략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¹⁴⁾

2) 분석방법 및 변인

본 연구는 먼저 가정의례 실태에 대한 의식 또는 평가를 다룸은 물론 실태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현실문제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운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순기술적인 방법은 물론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독립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변량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에 대해서는 쉐페검증(Scheffé's test)을 통해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중회기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관련된 변인들의 순수효과(관련된 제변인들을 통제한 후 각 변인들이 순수하게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심각성, 태도, 참여 등의 변인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해당항목들이 구성해내는 차원들을 분리하였다. 개선운동의 주체는 12개를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하였다.¹⁵⁾

13) 모집단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으로 하여 제주시 19개 동 중 11개 동 245명, 서귀포시 12개 동 중 7개 동 172명, 북제주군 86개 리 중 34개 리 195명, 남제주군 76개 리 중 31개 리 148명이 표집되었다.

14) 가정의례에 대한 실태, 개선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김진영, 앞의 글을 참조할 것.

15) 의례별 변인과 차원들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할 것. 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법(principal-component analysis)에 의해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시켰다.

따라서 분석변인들은 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 가령 지역, 성, 연령, 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 등이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이용되었다. 다중회기분석시에 이러한 독립변인외에 소득, 재산정도 등이 추가되었으며 지역, 성, 직업 등을 모조변인(dummy variable)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¹⁶⁾ 심각성 변인은 혼례, 상례, 그리고 소기의례별로 각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두 가지 차원이 사용되었다.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변인과 참여변인은 각각 혼례의례의 두 가지 차원, 상례 및 소기의례의 두 차원, 가정의례 공통사항과 관련된 한 가지 차원 등이 이용되었다. 개선운동의 주체는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주체영역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4. 가정의례 실태에 대한 의식 및 평가

현단계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정의례의 실태에 대한 평가는 가정의례 실태에 대한 지역사 회성원들의 의식을 반영해낸다. 이러한 평가는 가정의례별로 문제시되는 내용들의 우선순위를 점검합과 동시에 내용별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판별해내는 작업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1) 혼례의례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요즘에 행해지는 혼례의례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82.9%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¹⁷⁾ 나중에 확인될 것이지만 이 지역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가정의례 개선운동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것은 그 만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의 응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운동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그 필요성 인식의 정도가 떨어지고 또 현실적으로 운동의 조직화가 덜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의미있는 차이를 뚜렷히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200만원 미만의 집단들이 그 이상의 집단에 비해 문제점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찌면 이

16) 회기분석시에 학력은 9점척도, 소득과 주관적 계층은 8점척도로 측정된 것을 사용하였고 연령과 재산은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변량분석시에는 이러한 변인들을 4개 또는 7개의 카테고리로 범주화 시켰다.

17)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제주시 89.9%, 서귀포시 77.8%, 북제주군 84.3%, 남제주군 75.9%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현재의 혼례의례가 부담(가령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그 비용압력을 크게 받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602(82.9%)명을 대상으로(무응답자 제외), 6개의 항목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부터 중요 순서를 확인해본 결과를 먼저 보자(<표 1>참조).

6개의 항목내용중에서 가장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 항목별 평균점수를 보면 ②, ①, ⑤, ④, ③, ⑥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의 <CM> 참조).¹⁸⁾ 즉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따지면 '혼수품 종류가 너무 많아 지출되는 비용규모가 크다'는 항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답례품이 있어 잔치를 하는 쪽이나 하객 쪽의 부담이 크다'는 항목은 가장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해석이 평균점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일 뿐 평균점수상으로 순서가 뒤에 있다고 해서 그 항목이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서 낮은 것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 1> 혼례의례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평가되는 내용별 평균점수

구 분	단위: 점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CM>	5.01 (431)	5.03 (430)	3.60 (184)	3.80 (276)	4.68 (481)	3.54 (327)
<T%>	32.7 (592)	27.6 (601)	4.3 (588)	5.3 (591)	27.1 (601)	3.2 (591)
<TM>	3.65 (592)	3.60 (601)	1.13 (588)	1.78 (591)	3.74 (601)	1.96 (591)

주1) ① 음식물 종류가 많아 낭비가 된다. ② 혼수품 종류가 많아 지출되는 비용규모가 크다. ③ 잔치기간이 너무 길다. ④ 자택과 식당에서 음식물을 대접하게 되어 음식비 지출규모가 너무 크다. ⑤ 안팎부조로 부조금 지출규모가 너무 크다. ⑥ 답례품이 있어 잔치하는 쪽이나 하객 쪽의 부담이 크다.

2) <CM>: 해당 내용을 선택한 사람들을 기초로 한 평균점수(1~6점)

<T%>: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들을 기초로 하여 얻은 1순위 빈도 분포

<TM>: 해당 내용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들을 기초로 하여 얻은 평균점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18) 평균점수는 응답자들이 정한 순서를 점수화해서 산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에는 6점, 가장 덜 중요한 것에는 1점을 주었다. 6개의 문항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점수의 범위는 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되는 정도는 높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해당 내용을 선택한 사람들이 설정한 순위에만 기초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택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평균점수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선택한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대단한 오류를 지닐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T%>와 <TM>을 산출해보면 ③, ④, ⑥의 평균치는 앞의 것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혼례의례시 가장 문제로 인식되는 내용별 중요도의 순서는 ⑤, ①, ②, ⑥, ④, ③의 차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TM> 참조). 즉 “안팎부조로 부조금 지출규모가 너무 크다”는 내용을 혼례시에 가장 문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혼례의례시 제주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심각성 정도를 그동안 문제되는 것으로 거론되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¹⁹⁾ 호화혼수, 안팎잔치, 축하화환의 과다한 진열,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행위, 답례품 주기, 특급호텔에서의 예식, 2~3일에 이르는 결혼 잔치기간,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등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매우 심각하다’와 ‘다소 심각하다’를 합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심각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평가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들 가운데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가장 큰 것은 ③(축하화환의 과다한 진열), ⑧(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⑦(현재의 2~3일에 이르는 결혼잔치 기간)은 심각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 되고 있다.

<표 2> 혼례의례에서의 내용별 심각성 정도 평가

단위 : %, 점수

구 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 하지않다	전혀 심각 하지않다	계	평균 점수
①호화혼수	35.8	40.1	23.7	0.4	100.0	3.11
②자택, 식당등의 안팎잔치	25.6	40.0	32.1	2.3	100.0	2.89
③축하화환의 과다진열	29.8	40.4	27.1	2.7	100.0	2.97
④남편과 아내의 따로 부조	43.7	39.3	12.9	4.1	100.0	3.23
⑤답례품 주기	31.4	37.0	27.0	4.6	100.0	2.95
⑥특급호텔에서의 예식	29.4	32.2	32.7	5.7	100.0	2.85
⑦2~3일에 이르는 잔치기간	16.7	38.7	38.9	5.7	100.0	2.66
⑧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38.8	43.8	16.4	1.0	100.0	3.21

주)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의 정도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별 평가는 두 개의 응답범주만을 산술적으로 합해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응답범주들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9) 이러한 내용들은 운동의 추진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어온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4점척도로 얻은 점수를 기초로 응답자 전체의 내용별 평균점수를 보면 앞의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축하화환의 과다진열)은 순위가 중간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④(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행위)의 평균점수가 3.23으로 가장 높고 ⑦(잔치기간)은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상례 및 소기의례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상례의례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변에서 행해지는 또는 직적 행해보신 상례의례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4.7%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가 가장 많고 남제주군에서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혼례의례에서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소득수준별로는 100~200만원대의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의 사람들에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²⁰⁾

가장 문제가 된다고 평가되는 것을 전체 응답자 중심으로 보면 ④, ①, ③, ②, ⑥, 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CM〉참조).²¹⁾ 즉 ‘한 집에서 부조금을 안팎으로 하게 되어 부조금의 지출규모가 크다’라는 문항이 혼례에서처럼 제일 높은 평균점수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며 ‘굴건제복 착용’의 문항내용은 가장 덜 문제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순위는 〈TM〉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표 3〉 상례 및 소기의례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평가되는 내용별 평균점수

단위: 점수,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CM〉	5.09 (335)	4.57 (242)	4.60 (337)	5.21 (481)	2.87 (118)	3.50 (194)
〈T%〉	28.1 (530)	13.9 (535)	26.7 (540)	27.2 (540)	2.4 (540)	1.9 (530)
〈TM〉	3.22 (530)	2.07 (535)	2.87 (540)	4.64 (540)	0.63 (540)	1.13 (530)

주1) ① 3일을 초과한 장례기간, ② 굴건제복 착용, ③ 조화의 과다한 진열, ④ 음식물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⑤ 담례품 주기, ⑥ 여자문상객이 상주마다 부조하는 행위, ⑦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행위, ⑧ 기관 단체명의로 신문부고

2) 〈CM〉, 〈T%〉, 〈TM〉의 내용은 〈표2〉와 같음.

20) 지역별로는 제주도 80.6%, 서귀포시 71.4%, 북제주군 71.0%, 남제주군 74.1%가 상례의례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70만원 미만 72.7%, 70~100만원 73.1%, 100~150만원 79.3%, 150~200만원 79.5%, 200만원 이상이 60.3%로 나타나고 있다.

21) 점수부여 방법은 〈주 18〉과 동일하다.

상례시에 심각성의 정도를 측정한 내용도 혼례의례시와 마찬가지로 8개 문항이었다. ①3일을 초과한 장례기간, ②굴전제복 착용, ③조화의 과다한 진열, ④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⑤답례품 주기, ⑦여자 문상객들이 상주마다 부조하는 행위, ⑧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행위, ⑨기관, 단체명의로 신문부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항들도 그동안 제주지역사회에서 상례의례시에 문제점으로 광범위하게 지적되어온 것들이다. 응답범주 '매우 심각하다'와 '다소 심각하다'를 합하여 보면 ⑥과 ⑦의 경우가 빈도 수가 가장 많다. 반면에 ②는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굴전제복 착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점차 자연스럽게 사라져갈 것으로 많은 응답자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²⁾ 이들의 평균점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⑥, ⑦, ④ 등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아 다른 내용들에 비해 심각하게 평가되고 있다(<표 4>참조).

<표 4> 상례의례시 나타나는 문제들의 심각성 정도 평가

단위: %, 점수

구 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 하지않다	전혀 심각 하지않다	계	평균 점수
①3일을 초과한 장례기간	11.5	47.2	36.3	5.0	100.0	2.65
②굴전제복착용	8.2	30.6	50.0	11.2	100.0	2.36
③조화의 과다한 진열	33.5	41.5	24.5	0.5	100.0	3.08
④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	33.5	48.5	17.3	0.7	100.0	3.15
⑤답례품 주기	29.2	38.9	26.8	5.1	100.0	2.92
⑥여자문상객이 상주마다 부조	53.3	39.3	6.3	1.1	100.0	3.45
⑦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	45.6	41.0	10.7	2.7	100.0	3.30
⑧기관, 단체명의로 신문부고	25.0	37.2	33.0	4.8	100.0	2.83

주)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의 정도가 높다.

<표 5> 소기의례시 나타나는 문제들의 심각성 정도 평가

단위: %, 점수

구 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 하지않다	전혀 심각 하지않다	계	평균 점수
①문상객의 조문을 받는 문제	21.9	39.5	35.5	3.1	100.0	2.80
②소기를 하루 종일 지내는 문제	13.3	41.1	39.3	6.3	100.0	2.61
③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되는 문제	34.7	48.2	16.1	1.0	100.0	3.17
④답례품 주기	30.5	39.6	25.5	4.4	100.0	2.96
⑤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	44.1	43.7	9.2	3.0	100.0	3.29
⑥여자 문상객이 여상주마다 부조	52.3	39.9	7.0	0.8	100.0	3.44

주)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의 정도가 높다.

22) 상례시 굴전제복의 착용실태를 보면 17.7%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일반 배상복을 이용하고 있으며 점점예복의 경우는 1.5%로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착용되고 있다.

소기의례시에도 문제로 제기되는 내용들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여기에서는 문상객의 조문을 받는 문제, 소기의 종일 봉제, 음식물 낭비, 답례품 및 부조행위 등에 관한 6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훨씬 초과한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⑥에서가 심각하다고 보는 빈도가 가장 많다. ⑤와 ③의 경우도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②와 ①은 절반을 약간 넘어서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내용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내용별로 평균점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⑥, ⑤, ③, ④, ①, ②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여자문상객이 여상주마다 부조하는 행위'와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행위' 등 부조관련 행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가 크게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가정의례 심각성과 사회적 기반

가정의례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인구 및 사회적 조건 등과 같은 사회적 기반 변인별로 교차시켜 그 차이를 검토해 보자(〈표 6〉 참조). 이를 위해 가정의례별로 해당 문항들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차원들을 구분하였는데 각 의례는 두 가지 차원들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례별로 차원 I이 의례시에 간헐적으로, 또는 비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차원 II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을 각각 비일상적 차원과 일상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혼례의례시 비일상적 차원은 학력수준과 주관적 계층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일상적 차원은 성별, 지역, 학력, 직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일상적 차원에서는 고졸이하의 사람들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보다 혼례의례시 심각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에서는 중하층이하의 사람들이 중상층이상의 사람들보다 높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일상적 차원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서귀포와 남제주군보다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고교중퇴 이하보다는 고졸이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부, 전문직, 판매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보다 심각하다는 평가를 더 하고 있다. 상례의례의 비일상적 차원은 직업과 주관적 계층에서, 일상적 차원은 성, 학력,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있다. 소기의례의 비일상적 차원은 지역에서만 차이가 나고 일상적 차원은 성, 지역, 직업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인구, 사회적 변인별 가정의례별 심각성 정도

단위: 점수

구 분	혼례의례		상례의례		소기의례			
	I	II	I	II	I	II		
성별	남	15.2	9.1	11.8	9.9	8.7	9.9	
	여	14.9	8.7	11.6	9.5	8.5	9.5	
	유의도	N.S	**	N.S	**	N.S	**	
연령	30대	14.8	9.1	11.3	9.7	8.6	9.9	
	40대	14.9	8.9	11.6	9.7	8.6	9.7	
	50대	14.9	8.7	11.7	9.6	8.5	9.5	
	60대이상	15.4	8.8	11.7	9.6	8.6	9.8	
	유의도	N.S	N.S	N.S	N.S	N.S	N.S	
지역	제주시	15.1	9.1	11.7	9.6	8.3	9.7	
	서귀포시	15.3	8.7	11.7	9.7	9.1	9.7	
	북제주군	14.9	9.0	11.8	9.8	8.4	9.8	
	남제주군	14.7	8.2	11.6	9.4	8.8	9.3	
	유의도	N.S	***	N.S	N.S	***	*	
학력 수준	국졸이하	15.1	8.6	11.7	9.5	8.5	9.5	
	중졸, 고퇴	14.9	8.9	11.8	9.7	8.5	9.7	
	고교졸업	15.4	9.1	11.8	9.8	8.7	9.9	
	전문대이상	14.1	9.2	11.4	10.0	8.4	9.9	
	유의도	*	**	N.S	*	N.S	N.S	
직업	주부	15.0	9.1	11.9	9.7	8.5	9.9	
	전문직	14.4	9.2	11.5	9.9	8.3	9.8	
	행정, 사무직	14.1	8.9	10.8	9.4	8.4	9.3	
	판매직	15.7	9.5	12.3	10.3	8.8	10.2	
	서비스직	14.5	8.5	11.1	9.6	7.8	9.7	
	농림, 어업직	14.9	8.5	11.6	9.5	8.6	9.5	
	생산직	15.5	9.3	12.1	9.9	9.2	9.9	
	유의도	N.S	***	*	*	N.S	*	
	주관적 계층	상층	14.2	9.0	11.4	9.8	8.5	9.8
		중상층	14.9	8.9	11.7	9.6	8.6	9.7
중하층		15.6	8.8	11.9	9.7	8.7	9.7	
하층		15.0	8.7	11.7	9.6	8.4	9.5	
유의도		**	N.S	*	N.S	N.S	N.S	

* P<0.05, ** P<0.01, *** P<0.001

주 1) I은 비일상적 차원, II는 일상적 차원을 가리킨다.

2) 표상의 유의도는 변량분석 결과에 의한 것이며 실선은 Scheffé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들을 표시한 것이다. 뒤의 〈표 8〉과 〈표 14〉도 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세계검증을 통해 보다 엄격하게 집단간의 차이 비교를 해보면,²³⁾ 혼례의례의 경우 비상적 차원에서는 고교졸업자 집단과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집단에서만 차이가 나고 있다. 일상적 차원에서는 지역변인의 경우 제주시와 남제주군 거주자 집단간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거주자 집단간에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국졸이하와 고교졸업자간에, 직업별로는 판매직과 농림·어업직간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소기의례의 비일상적 차원의 경우는 지역 변인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시와 남제주군,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거주자간에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은 가정의례의 모든 차원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다른 변인들은 의례별, 차원별로 차이 여부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가정의례 개선운동 : 태도, 참여와 운동주체

가정의례 영역별로 개선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운동내용들에 대해 사회성원들이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개선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행동의지를 분석하고 운동주체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가.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

먼저 가정의례 영역별 세부적인 운동내용들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정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정의례별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를 인구 및 사회적 변인별로 보면 그 차이는 달라질 수 있다(〈표 8〉 참조). 요인분석을 통해 구분된 차원은 혼례의례는 결혼비용 및 화환 개선운동에 대한 차원, 기간 및 음식물 개선운동에 대한 차원 등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상례 및 소기의례는 항목들을 묶어서 차원을 구분했는데 조화 및 부고방식 개선운동에 대한 차원, 장례기간 및 소기봉제방식 개선운동에 대한 차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가정의례 공통사항에 관한 항목들은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 묶이고 있다.

23) 변량분석은 변인내에 여러 집단이 있을 경우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여타의 다른 집단들간의 차이가 없더라도 변인 전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검증은 여러 집단들을 쌍으로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어느 것인가를 밝혀준다. 변량분석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라 할지라도 세계검증을 하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이 검증법이 집단간 차이분석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표 7〉 가정의례에 관련된 운동내용에 대한 태도

단위 : %, 점수

내 용	적극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계	평균 점수
〈혼례의례〉						
① 잔치기간 줄이기	36.6	49.6	12.6	1.2	100.0	3.22
② 축하화환 수 줄이기	49.3	48.9	1.6	0.2	100.0	3.47
③ 자택과 음식점 중 한군데서 음식을 접대하되 면류로 바꾸기	30.5	47.7	16.7	5.1	100.0	3.03
④ 예물 수 줄이기	58.5	41.0	0.4	0.1	100.0	3.58
⑤ 예단 수 줄이기	62.0	37.9	0.1	—	100.0	3.62
⑥ 혼수품을 간소화하기	63.4	35.9	0.5	0.2	100.0	3.63
〈상례 및 소기의례〉						
① 상례기간을 3일장으로 하기	34.8	48.9	12.7	3.6	100.0	3.15
② 상례시 조화 수 줄이기	48.5	49.5	1.9	0.1	100.0	3.46
③ 부조를 상부조로 단일화하기	59.6	36.7	3.3	0.4	100.0	3.55
④ 굴진재복의 상복 현대화	20.4	41.5	27.2	10.9	100.0	2.71
⑤ 기관, 단체명의 신문부고 않기	49.9	45.6	3.8	0.7	100.0	3.45
⑥ 개인, 가족명의 신문부고 않기	50.1	44.7	4.4	0.8	100.0	3.44
⑦ 소기 때 조문객 받지말고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야제로 지내기	32.9	41.8	20.5	4.8	100.0	3.03
〈가정의례 공동사항〉						
① 답례품 안주기	45.8	37.0	14.5	2.7	100.0	3.26
② 음식대접을 국수로 간소화	29.5	47.4	18.2	4.9	100.0	3.02
③ 식사대신 음료수로 접대하기	7.1	23.0	37.3	32.8	100.0	2.04
④ 부부참여시 단일부조하기	60.7	33.2	5.6	0.5	100.0	3.54

주) 내용별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의 강도가 크다.

혼례의례의 차원 I 은 성별에서만 차이가 나며 차원 II 는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선행검증 결과 차원 II 는 학력과 직업에서만 유의미하다. 학력별로는 국졸이하와 전문대졸이상의 집단간에만 차이가 있고 직업에서는 판매직과 농림·어업직간에만 차이가 발견되는데, 앞의 심각성 분석에서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다.

상례 및 소기의례에서의 차원 I 은 성별과 지역에서만 차이가 있고, 차원 II 는 성별, 지역, 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선행검증을 해보면 차원 I 에서의 지역별 차이는 제주시와 남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사이에만 존재하고 있다. 차원 II 에서의 지역의 경우 서귀포시와 북제주군간에, 학력의 경우는 국졸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간에, 국졸이하와 고졸집단간 그리고 직업에서는 판매직과 농림 어업직 종사자간에만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표 8〉 의례별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

단위 : 점수

구 분		결 혼 의 례		상례 및 소기의례		가정의례 공통사항
		I	II	I	II	
성별	남	14.5	6.4	10.5	9.9	12.3
	여	14.2	6.1	10.2	9.6	11.5
	유의도	**	***	**	*	***
연령	30대	14.1	6.5	10.2	10.0	12.4
	40대	14.1	6.4	10.1	9.8	12.2
	50대	14.4	6.1	10.3	9.6	11.6
	60대이상	14.5	6.2	10.5	9.6	11.7
	유의도	N. S	*	N. S	N. S	**
지역	제주시	14.2	6.3	10.2	9.7	12.2
	서귀포시	14.1	6.4	10.1	10.1	11.9
	북제주군	14.3	6.2	10.5	9.5	11.8
	남제주군	14.6	6.1	10.7	9.7	11.2
	유의도	N. S	N. S	***	**	***
학력 수준	국졸이하	14.3	6.1	10.4	9.5	11.4
	중졸, 고퇴	14.2	6.3	10.1	9.8	12.0
	고교졸업	14.4	6.4	10.5	10.0	12.2
	전문대이상	14.3	6.7	10.3	10.4	13.0
	유의도	N. S	***	N. S	***	***
직업	주부	14.3	6.3	10.4	9.8	12.1
	전문직	14.1	6.5	10.1	10.1	12.3
	행정, 사무직	13.8	6.3	10.0	9.7	12.5
	판매직	14.6	6.8	10.7	10.3	12.4
	서비스직	14.2	5.9	9.9	9.4	11.5
	농림, 어업직	14.3	6.1	10.3	9.5	11.5
	생산직	14.1	6.5	10.3	10.4	12.7
	유의도	N. S	***	N. S	**	***
주관적 계층	상층	14.3	6.4	10.2	10.0	12.3
	중상층	14.2	6.2	10.4	9.8	12.0
	중하층	14.5	6.3	10.3	9.7	11.9
	하층	14.3	6.1	10.3	9.5	11.5
	유의도	N. S	N. S	N. S	*	*

* P<0.05. ** P<0.01. *** P<0.001

주) 혼례의례의 I 은 결혼비용 및 화환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 차원을, II 는 기간 및 음식물 개선운동의 태도 차원을 가리킨다. 상례 및 소기의례의 I 은 조화 및 부고방식 개선운동에 관한 태도 차원을, II 는 장례기간 및 소기봉제방식 개선운동의 태도 차원을 나타낸다.

가정의례 공통사항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는 표의 모든 변인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다. 선택점 중에서는 연령, 지역, 학력변인의 특정 집단에만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개선운동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차원에 따라 인구, 사회적 변인과 같은 사회적 기반별로 찬성의 정도가 차이난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모든 차원에서 개선운동에 대해 더 찬성하고 있다. 나머지 변인에 있어서는 차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나.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

앞의 논의가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정도에 관련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 또는 행동화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앞의 태도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소수점 이하의 수치를 고려하면 태도 분석에서의 평균점수보다 행동화에서의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측정상의 오차일 수도 있지만 다소 반대하더라도 운동이 제주사회 전역에 확산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표 9> 가정의례 개선운동에의 참여

단위 : %, 점수

내 용	적극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계	평균 점수
〈혼례의례〉						
①잔치기간 줄이기	39.8	49.5	10.4	0.3	100.0	3.29
②축하화환 수 줄이기	51.9	42.9	4.9	0.3	100.0	3.46
③자택과 음식점중 한군데서 음식을 접대하되 면류로 바꾸기	33.7	46.2	14.9	5.2	100.0	3.08
④예물 수 줄이기	61.5	37.7	0.8	—	100.0	3.61
⑤예단 수 줄이기	64.1	35.2	0.7	—	100.0	3.63
⑥혼수품을 간소화하기	64.8	34.4	0.8	—	100.0	3.64
〈상례 및 소기의례〉						
①상례기간을 3일장으로 하기	35.7	47.8	14.3	2.2	100.0	3.17
②상례시 조화 수 줄이기	48.0	44.8	7.0	0.2	100.0	3.40
③부조를 상부조로 단일화하기	61.7	34.6	3.3	0.4	100.0	3.58
④굴전재복의 상복 현대화	22.5	43.0	23.9	10.6	100.0	2.78
⑤기관, 단체명의 신문부고 않기	54.2	42.7	2.9	0.2	100.0	3.51
⑥개인, 가족명의 신문부고 않기	54.8	41.8	3.0	0.4	100.0	3.51
⑦소기때 조문객 받지말고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야제로 지내기	32.9	44.9	17.5	4.7	100.0	3.06
〈가정의례 공통사항〉						
①답례품 안주기	50.1	35.0	12.6	2.3	100.0	3.33
②음식대접을 국수로 간소화	32.4	47.8	16.3	3.5	100.0	3.09
③식사대신 음료수로 접대하기	9.8	28.7	34.0	27.5	100.0	2.21
④부부참여시 단일부조하기	61.6	31.7	6.4	0.3	100.0	3.55

주)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의지의 강도가 크다.

위의 항목들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차원들을 분리하고 이들과 관련변인들간의 연관성을 보기로 하자. 먼저 혼례 간소화 운동 참여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차원 I (결혼비용 및 화환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는 태도 변인의 차원 I 과 심각성 변인의 차원 I 이 유의미한 것으로, 그리고 직업과 거주지역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혼례의례 실태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이 강할수록, 혼례의례 개선운동에 찬성하는 태도를 갖을수록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게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별로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이른바 산남지역 거주자가,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행정관리직·사무직이 아닌 직업집단이 운동에의 참여의지가 높다. 나머지 변인들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례의례 개선운동 차원 II (잔치기간 및 음식물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에서는 태도 차원 I 과 II, 심각성 차원 II 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인들은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0〉참조).

〈표 10〉 혼례의례 개선운동 참여에 대한 다중회기분석 결과

독립변인	개선운동 참여 I	개선운동 참여 II
	Beta	Beta
혼례의례 심각성 I	.193*	.058
혼례의례 심각성 II	.033	.072*
혼례의례 개선운동 태도 I	.734***	.053*
혼례의례 개선운동 태도 II	-.328	.780***
성별	.069	-.004
연령	-.024	-.021
거주지역	.052*	-.018
성장지	.003	.031
결혼여부	-.029	.032
종교	-.022	.008
직업	-.110**	-.003
교육수입	.007	-.009
수입	.015	-.004
주관적 계층	-.016	.049
혼례의례 경험여부	.069	-.033
R Square	.596***	.623***

* P<0.05, ** P<0.01, *** P<0.001

주 1) 성별: 남자=1, 여자=0

2) 거주지역: 서귀포시, 남제주군=1, 제주시, 북제주군=0

3) 성장지: 육지=1, 제주도=0

4) 결혼여부: 결혼=1, 미혼, 이혼, 배우자 사별후 독신=0

5) 종교: 천주교, 기독교=1, 기타(불교, 유교 등)=0

6) 직업: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1, 기타(농림수산업, 생산직, 서비스직, 판매직)=0

7) 혼례의례 직접 경험여부: 경험=1, 비경험=0

상례 및 소기의례 개선운동 참여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졌는데, 차원 I (조화 및 부고방식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는 태도 차원 I 과 II, 상례의례 심각성 I 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태도 차원 I 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표 11〉 참조). 차원 II (장례기간 및 소기봉제방식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는 태도 차원 II 와 소기의례 심각성 차원 II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태도 차원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인들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1〉 상례 및 소기의례 개선운동 참여에 대한 다중회기분석 결과

독립변인	개선운동 참여 I	개선운동 참여 II
	Beta	Beta
상례의례 심각성 I	.222*	.059
상례의례 심각성 II	-.006	-.033
소기의례 심각성 I	.081	.163***
소기의례 심각성 II	.025	.070
상례 및 소기의례 개선운동 태도 II	.659***	.012
상례 및 소기의례 개선운동 태도 I	.396**	.807***
성 별	.071	.017
연 령	.080	-.006
거주지역	.035	-.010
성장지	.008	-.005
결혼여부	.004	.040
종 교	-.064	-.023
직 업	-.111	-.013
교 육	-.028	-.049
수 입	-.011	.009
주관적 계층	-.016	.030
상례의례 경험여부	.104	.033
소기의례 경험여부	.009	-.012
R Square	.581***	.674***

* P<0.05, ** P<0.01, *** P<0.001

주 1) 〈표 10〉 참조

2) 상례의례 직접 경험여부: 경험=1, 비경험=0

3) 소기의례 직접 경험여부: 경험=1, 비경험=0

한편 가정의례 공통에 대한 간소화운동 참여에서는 혼례의례에서의 태도 차원 II 와 심각성 차원 II, 상례 및 소기의례의 태도 차원 II 와 상례의례의 심각성 차원 I 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태도 차원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12〉 참조).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유의미한 변인들로는 거주지, 종교, 주관적 계층 등이다. 이것은 거주지역

별로는 산남지역 거주자가, 종교별로는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그리고 주관적으로 높은 계층에 소속의식을 느낄수록 가정의례에 공통에 관련된 사항을 간소화시키자는 운동에 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10>과 <표 11>에서 처럼 이 표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사실은 개선운동 참여에 있어 인구 및 사회적 변인 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배경변인들보다는 심각성이나 태도의 변인이 운동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 12> 가정의례 개선운동 참여(공통)에 대한 다중회기분석 결과

독립변인	가정의례 개선운동(공통) Beta
혼례의례 심각성 I	.065
혼례의례 심각성 II	.102*
상례의례 심각성 I	-.106*
상례의례 심각성 II	.057
소기의례 심각성 I	.034
소기의례 심각성 II	.201
혼례의례 개선운동 태도 I	-.024
혼례의례 개선운동 태도 II	.452***
상례 및 소기의례 개선운동 태도 I	.058
상례 및 소기의례 개선운동 태도 II	.508***
성 별	.082
연 령	-.083
거주지역	-.154***
성장지	-.005
결혼여부	.015
종 교	-.112*
직 업	.007
교 육	-.023
수 입	.021
주관적 계층	.068*
혼례의례 경험여부	-.060
상례의례 경험여부	.076
소기의례 경험여부	-.010
R Square	.564***

* P<0.05, ** P<0.01, *** P<0.001

주) <표 10>, <표 11> 참조.

2) 가정의례 개선운동의 주체

가정의례 개선운동의 추진 주체는 가정의례를 간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간소화 운동을 이끄는 개인이나 집단의 설정이 성공스럽게 이루어져야만 일반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형성함은 물론 운동의 정당성을 주지시키고 사회성원들로부터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위 규범의 정착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성, 자발성, 내면화 그리고 보상(처벌)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집단이 운동의 주체로 설정되어함은 지극히 온당한 일일 것이다.

〈표 13〉 가정의례 개선운동시 중심이 되어야 할 기관이나 단체의 우선순위

단위: 점수,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CM〉	3.1 (274)	3.7 (634)	3.2 (470)	2.5 (258)	2.2 (66)	2.4 (333)	2.9 (27)	3.3 (387)	3.0 (544)	2.7 (310)	3.4 (81)	3.0 (196)
〈T%〉	10.6 (705)	36.7 (730)	6.4 (715)	1.4 (709)	1.1 (702)	4.6 (721)	6.4 (703)	15.3 (711)	11.6 (722)	5.5 (723)	1.6 (701)	7.7 (731)
〈TM〉	1.2	3.2	2.1	0.9	0.2	1.1	0.1	1.8	2.3	1.1	0.3	0.8

주1) ① 노인회 ② 해당지역 부녀회 ③ 지역 청년회 ④ 새마을 지도자 ⑤ 각종 종교단체 ⑥ 방송, 신문 등 언론단체 ⑦ 향교(유도회) ⑧ 도청이나 각급 시군청 ⑨ 읍, 면, 동사무소 ⑩ 각종 사회단체(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여성단체 등) ⑪ 각급 학교 ⑫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외에 별도의 운동 추진체

2) 〈CM〉, 〈T%〉, 〈TM〉의 내용에 대해서는 〈표 1〉과 같다.

3) 점수의 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다.

본 연구에서 운동주체로 응답자에게 제시된 것은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12개 기관 혹은 단체였다. “가정의례 개선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할 기관이나 단체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5개만 골라 순서를 숫자로 적어주시시오”라는 질문을 하고 기관 또는 단체의 우선순위를 5점 만점으로 평균점수화하였다.

표에 제시된 수치들은 〈표 1〉에서 처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첫째의 방법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선택한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평균점수를 구해보는 것이다(표의 〈CM〉 참조). 이를 보면 해당지역 부녀회 조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부녀회 조직은 비공식적, 자발적 결사체적인 성격을 갖는 것인데 가정의례의 간소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도청이나 각급 시 군청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지역청년회와 읍 면 동사무소가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행정기관인 도시 군청과 읍 면 동사무소는 모두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내 비공식적 조직인 부녀회, 청년회와 더불어 가장 호소력있는 운동의 주체로 설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은 평균점수와 더불어 응답자 수이다. 가령 부녀회의 경우 634명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 732명 가운데서 86.6%인 634명으로부터 운동의 주체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읍 면 동사무소는 청년회나 도 시 군청보다 평균점수에서 낮은 위치에 있지만 응답자 수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균점수가 지지의 강도(density) 혹은 충성도(loyalty)를 의미한다면 응답자 수는 지지의 보편성 혹은 일반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받고 평균점수가 높은 기관 혹은 단체가 개선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간소화를 정착시키는데 나름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전체 응답자와 관련시켜 우선 순위를 따져보는 방법으로, 첫번째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하다. 이 경우에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순위 파악이 가능하다. 하나는 전체 응답자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느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표의 <T%> 참조). 즉 1순위로 들고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빈도분포를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부녀회를 가장 중요한 중심적 단체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 시 군청, 읍 면 동사무소, 노인회의 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전체 응답자를 기초로 해서 평균점수를 보는 것이다(표의 <TM> 참조). 첫번째 방법에 의거한 설명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선택한 사람들과 이들에게서 얻어진 평균점수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체 응답자를 기초로 하여 평균점수를 구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선택 빈도와 중요도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해 보아야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중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의 순서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부녀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읍 면 동사무소, 청년회, 도 시 군청, 노인회, 각종 사회단체, 언론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새마을 지도자, 종교단체, 향교(유도회), 각급 학교, 별도의 운동추진체 등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12개의 운동추진체들 중에는 서로 친화력이 있고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인분석에 의해 이들을 묶어보면 5개의 관련 집단으로 구별되고 있다. <표 14>는 이같은 5개 집단을 인구 및 사회적 변인들과 교차시켰을 때(변량분석) 얻어진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일차적 개선운동 추진체는 지역변인에서만 차이가 나고 다른 변인들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행정지원 추진체는 지역과 주관적 계층을 제외한 변인들에서 차이가 나는 반면에 의례와 도덕 중심의 추진체는 성별, 학력, 직업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있다. 홍보 추진체는 연령과 지역에서, 종교단체는 지역과 직업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든 추진체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변인은 주관적 계층뿐이다.

변량분석으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독립변인에 대해 선택검증을 해보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연령, 지역, 학력변인들의 특정 집단들간에만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표 14〉 인구, 사회적 변인별 운동주체의 평균점수

구분	I	II	III	IV	V	
성별	남	6.9	3.7	2.0	2.1	0.1
	여	7.3	4.3	1.3	1.9	0.2
	유의도	N.S	**	***	N.S	N.S
연령	30대	7.5	3.1	1.6	2.4	0.3
	40대	7.6	3.6	1.8	2.1	0.2
	50대	6.9	4.4	1.4	1.9	0.2
	60대이상	7.1	4.3	1.7	1.7	1.4
	유의도	N.S	***	N.S	*	N.S
지역	제주시	7.3	3.9	0.9	2.3	0.3
	서귀포시	7.2	3.8	2.0	1.9	0.2
	북제주군	7.5	4.3	1.4	1.7	0.2
	남제주군	6.4	4.2	2.3	1.7	0.4
	유의도	*	N.S	N.S	**	***
학력 수준	국졸이하	7.1	4.5	1.9	1.9	0.1
	중졸, 고퇴	6.9	4.2	1.7	1.9	0.2
	고교졸업	7.5	3.5	1.5	2.2	0.3
	전문대이상	7.2	2.8	2.3	2.2	0.3
	유의도	N.S	***	*	N.S	N.S
직업	주부	7.3	4.1	1.1	2.1	0.2
	전문직	8.3	2.8	2.0	2.0	0.2
	행정, 사무직	7.8	2.5	2.2	2.2	0.2
	판매직	7.2	3.9	1.3	2.1	0.4
	서비스직	7.1	3.8	0.7	2.6	0.6
	농림, 어업직	7.1	4.2	1.8	1.8	0.1
	생산직	6.4	4.7	1.5	2.3	0.2
	유의도	N.S	*	*	N.S	*
주관적 계층	상층	7.2	3.7	1.6	2.0	0.3
	중상층	7.1	3.9	1.5	2.1	0.2
	중하층	7.1	4.3	1.6	1.9	0.2
	하층	7.2	4.2	1.6	1.9	0.2
	유의도	N.S	N.S	N.S	N.S	N.S

주) I 일차적 개선운동 추진체(부녀회, 지역청년회, 각종 사회단체,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외의 별도의 운동 추진체), II 행정지원 추진체(도청·시·군청, 읍·면·동사무소), III 의례와 도덕 중심의 추진체(노인회, 향교, 각급학교), IV 홍보추진체(언론, 새마을지도자), V 종교단체.

그런데 여기서 가정의례 개선운동의 성공스런 정착과 성과를 위해서 행정기관과 사회지도층 인사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의례 간소화 운동에 있어서 도 시 군청과 읍 면 동사무소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위치지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사람들로부터도 주체의 우선순위에서 2~3위로 평가되고 있어 그 역할이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다른 자발적 단체와 달리 체계화된 조직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성취 능력과 의지가 강한 조직이면서 간소화 운동에 있어서 다른 단체들의 목표성취를 지원하거나 하위 지역 단위들을 묶어주고 조정해주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가정의례를 간소화시키는 운동에 있어서 단지 지원하는 위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조정기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다른 자발적 단체와 연대하여 현장 전면에 서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운동과 달리 이 분야와 관련된 운동에서는 이른바 '정부주도형 운동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경계'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이를 의식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의례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심각성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를 하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운동주체 우선순위에서도 행정기관을 앞 순위 그룹에 위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기관은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와 더불어 개선 운동 추진에 있어서 최일선에 서야 할 단체 및 기관으로 평가된다.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다른 질문을 통해서도 잘 확인된다. "가정의례 개선운동을 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이외의 별도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2%가 '행정기관이나 기존 사회단체를 잘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별도의 운동추진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도 32.8%에 이르러 그 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의 <표 13>의 분석에서 보듯이 전체분포(total distribution)에서의 빈도와 점수를 보면 결코 그 기능이 클 것으로 기대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지도층 인사가 개인적으로 개선을 위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6.6%가 가정의례의 간소화를 실천하는 데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사실 가정의례시에 있어서 과소비적이고, 낭비적이고, 과시적인 부분은 사회지도층 집단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소화를 실천하는 걸림돌로 이 집단을 지적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이 집단이 개별적으로 간소화 의지를 현실화시킨다면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우리는 이 글에서 제주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정의례 실태에 대한 의식과 개선운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기보다는 얻어진 내용을 기초로 가정의례 간소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합의를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의례 개선운동은 무엇보다도 도민 개개인의 의식 전환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이를 전제로 한다. 의식은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더우기 요즘처럼 국제화와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생활과 의식을 개혁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식과 생활의 합리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상황에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화의 성공이 우리의 의식에 달려있고 지역의 경쟁력은 지역사회 성원들이 합리적 기준에 의해 생활을 설계하는 것과 함수관계를 갖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활의 합리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정의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응답자 대부분은 현행 가정의례의 내용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식의 차원에서 보면 운동의 전제조건은 상당히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소화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천과 연결되려면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의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사회성원 개개인들이 행동화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간소화 실천운동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전환에 있어서 개인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분명하다. 가정의례시 과소비적이고 낭비적이며 과시적인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도 한 사회의 지도층이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면 가정의례 간소화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각급 기관(행정기관, 학교 등)의 기관장 및 간부, 기업조직의 임원, 단체의 대표, 지식인층 등이 솔선수범하여 가정의례를 간소하게 행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밑으로의' 파급 효과는 조직적인 운동 못지 않게 가시적인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 명백하다. '윗쪽에서의' 자발적 실천이 현단계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운동의 내용과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든 간에²⁴⁾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운동을 가장 일선에서 주도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끌어 나갈 단체나 기관으로는 해당 지역의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를 포함한 각급 행정기관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의 세 조직이 주민 차원의 운동 추진체라고 한다면 뒤의 행정기관은 이들을 지원하고 묶어줄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이며 목표 성취 의식이 강한 조직이다. 지금의 가정의례 개선운동이 과거처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 운동에 관한 한 사회성원들이 행정기관을 운동 주체의 우선순위 점수에서 높게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각급 행정기관의 노력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언론과 각종 사회단체의 역할이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특히 언론은 운동의 내용과 방향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 활동에 대한 여론을 조직화하고 사회적 목표를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각종 언론매체가 마련하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특집 프로그램은 가정의례 간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제주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행 가정의례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선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태도는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성원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의례 간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 심화와 운동 추진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4) 운동의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는 김진영, 앞의 글(1994)을 참고할 것.

〈부록 : 질문 문항과 측정 방식〉

1. 혼례의례시 가장 문제시되는 내용들 :

“요즘 행해지는 혼례의례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 다음 문항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차례로 숫자를 기입하시되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제외시켜도 됩니다”.

- ① 음식물 종류가 많아 낭비가 된다. ② 혼수품 종류가 많아 지출되는 비용규모가 크다. ③ 잔치기간이 너무 길다. ④ 자택과 식당에서 음식물을 대접하게 되어 음식비 지출규모가 너무 크다. ⑤ 안팎부조로 부조금 지출규모가 너무 크다. ⑥ 답례품이 있어 잔치하는 쪽이나 하객 쪽의 부담이 크다.

2. 상례 및 소기의례시 가장 문제시되는 내용들 :

“주변에서 행해지는 또는 직접 행해보신 상례 및 소기의례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 다음의 문항중에서 가장 문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차례로 숫자를 기입해주시되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제외시켜도 됩니다”.

- ① 접대하는 음식물 종류가 많아 낭비적이다. ② 장례기간이 길다. ③ 답례품을 주고 있어 의례를 행하는 쪽의 비용부담이 크다. ④ 한 집에서 부조금을 안팎으로 하게 되어 부조금 지출규모가 크다. ⑤ 굴건제복 착용. ⑥ 소기를 하루 종일 지내는 문제.

3. 가정의례시 나타나는 문제들의 심각성 정도

* 심각성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등의 응답지에 대해 각각 4점, 3점, 2점, 1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1) 혼례의례에서의 심각성 정도 :

“제주도에서 혼례의례를 행할 때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호화혼수, ② 자택·식당 등의 안팎잔치, ③ 축하화환의 과다진열, ④ 남편과 아내의 따로 부조하는 행위, ⑤ 답례품 주기, ⑥ 특급호텔에서의 예식, ⑦ 2~3일에 이르는 잔치기간, ⑧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2) 상례의례시 나타나는 내용별 심각성 정도 :

“제주도에서 상례의례를 행할 때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3일을 초과한 장례기간, ② 굴건제복 착용, ③ 조화의 과도한 진열, ④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⑤ 답례품 주기, ⑥ 여자문상객이 상주마다 부조하는 행위, ⑦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행위, ⑧ 기관 단체명의로의 신문부고.

3) 소기의례시 나타나는 내용별 심각성 정도 :

“제주도에서 소기의례를 행할 때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기(탈상) 때 문상객의 조문을 받는 문제, ② 소기를 하루 종일 지내는 문제, ③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되는 문제, ④ 답례품 주기, ⑤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행위, ⑥ 여자 문상객이 여상주마다 부조하는 행위.

4) 가정의례별 심각성 차원

혼례의례 차원 I (비일상적 차원)은 ①, ②, ③, ⑥, ⑧ 등으로, 차원 II (일상적 차원)는 ④, ⑤, ⑦ 등을 합하여 구성되었다.

상례의례 차원 I (비일상적 차원)은 ①, ②, ③, ④, ⑧ 등으로, 차원 II (일상적 차원)는 ⑤, ⑥, ⑦ 등을 합하여 구성되었고, 소기의례 차원 I (비일상적 차원)은 ①, ②, ③ 등으로 차원 II (일상적 차원)는 ④, ⑤, ⑥ 등을 총합하여 구성되었다.

4.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와 참여

1) 측정과 내용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와 참여는 동일한 항목들에 대해서 응답지의 내용만을 달리하여 측정되었다. 태도는 ‘적극 찬성한다’ 4점, ‘대체로 찬성한다’ 3점, ‘대체로 반대한다’ 2점, 그리고 ‘절대 반대한다’에 1점을 주어 측정하였으며, 참여는 ‘적극 참여하겠다’ 4점, ‘대체로 참여하겠다’ 3점, ‘거의 참여않겠다’ 2점, ‘절대 참여않겠다’에 1점을 주었다.

혼례의례에 관련된 운동내용 :

① 결혼잔치 기간을 줄이자는 운동, ② 결혼축하 화환 수를 줄이자는 운동, ③ 혼례의례

때 자택과 음식점 모두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말고 한 군데서 하되 식사 종류를 면류로 바꾸자는 운동, ④ 예물 수를 줄이자는 운동, ⑤ 예단 수를 줄여 부담 안가는 범위에서 하자는 운동, ⑥ 혼수품을 간소화하자는 운동.

상례 및 소기의례에 관련된 운동 내용 :

① 장례기간을 3일장으로 하자는 운동, ② 상례시 조화의 수를 줄이자는 운동, ③ 상례시 특정 상주들에게 별도로 부조금을 주지 않고 상부조로 단일화하자는 운동, ④ 굴건제복과 같은 상복을 현대식으로 바꾸자는 운동, ⑤ 기관, 단체명의로 신문부고 안하기 운동, ⑥ 개인, 가족명의로 신문부고 안하기 운동 ⑦ 소기 때 조문객을 받지 않고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야제로 밤에만 지내자는 운동.

가정의례 공통사항에 관련된 내용 :

① 답례품 안주기 운동, ② 가정의례 때 밥, 국, 고기류의 음식 대접을 국수류로 간소화하자는 운동, ③ 가정의례 때 식사류 대신 음료수 접대로만 하자는 운동, ④ 남편과 부인이 가정의례에 참여할 경우 따로 부조하지 말고 단일부조로 하자는 운동.

2)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 차원

혼인의례에 관련된 운동 태도 차원 I (결혼비용 및 화환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은 ②, ④, ⑤, ⑥ 등으로, II (조화 및 부고방식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는 ①, ③등으로 구성되었다. 상례 및 소기의례에 관련된 운동 태도 차원 I (조화 및 부고방식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은 ②, ⑤, ⑥ 등으로 구성되었고 II (장례방식 및 소기봉제방식 개선운동에 대한 태도)는 ①, ③, ⑦ 등으로 이루어졌다. 가정의례 공통사항에 관련된 운동 태도는 단일 차원으로 묶여져 있다.

3) 가정의례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 차원

혼인의례에 관련된 운동 참여 차원 I (결혼비용 및 화환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은 ②, ④, ⑤, ⑥ 등으로, II (잔치기간 및 음식물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는 ①, ③으로 이루어졌다. 상례 및 소기의례에 관련된 운동 참여 차원에 있어서 I (조화 및 부고방식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은 ②, ⑤, ⑥ 등으로, II (장례방식 및 소기봉제방식 개선운동에 대한 참여)는 ①, ③, ⑦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사항과 관련된 운동 참여는 한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